통도사 '불기 2569년 보살계 산림' 봉행한다

4월 2일~4일, 경내 금강계단
자장율사 '계율 근본도량' 법맥
전계사 덕문 스님과 3사 7증사
영축장학금 전달로 인재불사



영축총림 통도사가 불기 2569년 보살계산림을 4월 2일부터 4월 4일까지 경내 설법전에서 봉행한다. 사진은 지난해 통도사에서 열린 보살계산림 자료사진.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덕 스님)가 불기 2569년 보살계산림을 4월 2일부터 4월 4일까지 경내 설법전에서 봉행한다.

통도사의 보살계산림은 단순한 수계 의식이 아니라, 불자들이 신행의 방향을 다지고 수행을 심화하는 중요한 계기로 자리 잡고 있다. 창건주인 자장율사가 646년 중국에서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셔와 금강계단을 조성하고 계율을 설한 전통을 계승하며, 통도사는 '계율 근본도량'이라는 법맥을 이어오고 있다. 계율을 통해 개인 수행뿐만 아니라 불교 공동체 전체가 청정한 수행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이 보살계산림의 본래 취지다.

이번 보살계산림에서는 전계사 덕문 스님을 비롯한 3사, 7증사 스님이 법석에 올라 '범망경'의 10중계와 48경계를 설하며, 대승보살계를 수지하는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갖는다.

범망경(梵網經)은 대승불교에서 보살계를 설하는 대표적인 경전으로, 모든 중생이 불성을 지니고 있으며 깨달음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음을 강조한다.

보살계산림 첫날인 4월 2일 오전 9시 30분에는 입재 불공이 봉행되며, 이어 10시 30분 입재식과 오후 2시부터 본격적인 설계가 시작된다. 4월 3일에는 오전 9시 30분 불공을 올리고, 오전과 오후에 걸쳐 설계가 진행된다. 마지막 날인 4월 4일에는 오전 7시부터 계첩 배부가 이뤄지며, 오전 8시 불공을 봉행한 뒤 9시 10분부터 수계식이 진행된다. 수계식에서는 불자들이 직접 보살계를 수지하며, 신심을 다지고 계율 실천을 서원하는 시간이 마련된다.

한편, 통도사는 매년 보살계산림에 10회 이상 동참한 불자들에게 기념패와 메달을 수여하며, 10회, 15회, 20회 보살계를 받은 불자들에게는 기념 메달을, 25회, 30회, 35회, 40회를 성만한 불자들에게는 성만패를 증정한다. 이는 보살계를 실천해 온 불자들의 신심을 격려하고, 계율 실천을 더욱 고취하기 위한 취지다. 장기간 보살계를 수지하며 신행을 이어온 불자들의 공덕을 찬탄하고, 신심을 더욱 굳건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미도 담겨 있다.

또한, 통도사는 보살계산림 회향일에 영축총림 소속 스님들을 대상으로 장학승을 선발해 영축장학금을 전달하며 계율을 기반으로 한 수행과 교육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보살계 산림 동참금은 5만원이며, 참가를 원하는 신도들은 화엄전(055-381-1288)으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행사 기간 중 통도사는 부산 노포동 지하철역 1번 출구 앞에서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차량을 운행해 신도들의 이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자비와 나눔의 화신' 도원당 만오 스님 원적

3월 18일, 세납 88세 · 법랍 59년
19일, 동국대 WISE캠서 열반재



자비와 나눔의 수행자 도원당 만오 스님〈사진〉이 3월 18일 오후 4시 원적에 들었다. 세납 88세, 법랍 59년.

1938년 서울에서 태어난 만오 스님은 19세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모친의 인연으로 1957년 가지산 석남사로 입산해 명훈 스님을 은사로 1966년 득도했다. 이후 비구니 선지식 인홍 스님을 모시고 석남사 선원에서 수행하며 정진했다.

1981년 부산 엄궁동에 도원사를 창건한 스님은 기도와 전법에 힘쓰며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을 위한 자비보살의 삶을 실천했다. 불교계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나눔을 실천했고 동국대와 종립 중·고등학교, 아프리카 케냐 학교 건립, 지구촌공생회, 생명나눔실천본부, 엄홍길재단, 굿네이버스, BTN, 108자비손 룸비니고아원 등 다양한 기관을 지원하며 보시행을 펼쳤다.

특히 동국대와 인연은 각별했다. 불교 인재 양성을 위해 꾸준히 장학금을 희사하며 교육 불사를 실천해 왔으며, 2023년에는 자신의 전 재산을 동국대 서울·WISE캠퍼스 등에 사후 기부하는 공증을 마쳤다.

수행자로서의 본분을 철저히 지키며 형식보다는 본질을 중시했던 만오 스님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수행자의 자세를 견지하고자 자신의 영결식을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에 동국대 WISE캠퍼스는 3월 19일 정각원에서 스님의 뜻을 존중하며 열반재를 봉행하고, 그동안 스님이 베풀어 온 자비와 보시행을 기억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정각원장 법천 스님은 열반재 법문에서 "만오 스님께서는 수행자의 길뿐만 아니라 나눔과 교육, 전법을 통해 불교의 미래를 밝히는 데 큰 역할을 하셨다"며 "특히 스님께서는 평생 일궈오신 전 재산을 동국대 서울과 WISE캠퍼스에 남기시면서 무주상 보시를 몸소 실천하셨다. 스님께서 실천하신 보살행과 인재불사의 정신은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할 소중한 가치"라고 강조했다.

스님의 법구는 3월 20일 동국대 WISE캠퍼스를 경유했고, 오전 11시 통도사 연화대에서 다비식이 엄수됐다. 스님의 뜻에 따라 영결식은 생략됐으며, 49재는 통도사 서축암에서 진행된다. 49재 회향 법문은 5월 3일 전 중앙승가대 총장 종범 스님이 설할 예정이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백현식 신도회장, "삼광사는 신도들의 마음 안식처"

3월 13일, 간담회서 포부 밝혀
불교계 축구대회 개최 계획도



"삼광사가 신도들에게 마음의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사찰은 마음을 다스리는 곳이며, 신도들에게 안식과 위로를 주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실천적 신행 활동을 통해 불교의 본질에 다가가는 도량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삼광사 23대 신도회장으로 백현식 부산시축구협회장〈사진〉이 임명됐다. 3월 13일 부산 해운대에 위치한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백 회장은 신도들이 진정으로 교화될 수 있는 내실 있는 운영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삼광사의 전통적인 신행 활동과 현대적 운영 방안을 조화롭게 접목해, 삼광사가 신도들에게 더욱 친숙한 도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특히 부산 불교계의 화합과 결속을 위해 불교계 축구대회 개최 계획도 밝혔다. 그는 "불교계 내에서 체육 활동을 통해 신도들과 스님들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부산불교연합회와 협력해 축구대회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불교계 내부의 친목을 도모하고, 젊은 세대와도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미소원 청년회, 후원의 날 '일일맛집'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에 사용
문화 · 환경 활동 기금 마련도



사단법인 미소원 청년회(회장 이다겸)가 창립 9주년을 맞아 후원의 날 행사로 '일일맛집'을 개최했다.〈사진〉 이번 행사는 3월 14일 사단법인 미소원 법당에서 열렸으며, 이다겸 청년회장을 비롯해 장유정 미소원 이사장, 부산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안도 스님, 연종학림 청명 스님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동참했다.

이날 마련된 후원금은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을 비롯해 '미소원 청년회와 함께하는 문화활동', '친환경 활동 줍깅' 등의 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특히, 미소원 회원 불자들의 재능 기부와 식재료 후원으로 다양한 음식이 제공되었으며, 청년 불자들과 후원회원, 승·재가 관계자들이 함께 어우러져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다겸 청년회장은 "미소원 청년회는 나눔과 실천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부산대 불교바라밀, 첫 점안법회

3월 15일, 부산대 동아리방서
범어사 주지 정오 스님 증명



60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부산대 불교동아리 '불교바라밀'이 창립 이래 처음으로 부처님 점안법회를 봉행했다.〈사진〉 3월 15일 부산대 학생회관 불교바라밀 동아리방에서 열린 점안법회에는 불교바라밀 지도 사찰인 금정총림 범어사 주지 정오 스님, 총무국장 대방 스님, 교무국장 석산 스님, 호법국장 정수 스님, 연수국장 담산 스님, 홍보국장 벽해 스님, 사회국장 법진 스님, 해피법당 선원장 해피 스님과 정주철 공과대학장 교수, 진교진 건축학과 교수, 서칠교 작가, 유주연 대불련 중앙회장 등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증명법사 금정총림 범어사 주지 정오 스님은 "마음을 여는 순간 부처님의 가르침이 스며들고 자비와 지혜의 길이 열린다"며 "명상의 공간에서 자신을 성찰하고 큰 마음으로 살아가며 행복해지시기를 바란다"고 개안법문을 설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부산불교聯, '부산연등회' 제1차 회의

3월 19일, 연합회 전법관



부산불교연합회(회장 정오 스님)가 부산지역 사찰 및 불교 단체 실무자들과 함께 '불기 2569년 부산연등회' 주요일정을 공유하며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다.

부산불교연합회는 3월 19일 연합회 전법관에서 '불기 2569년 부산연등회' 제1차 실무자 회의를 개최했다.〈사진〉 이날 회의에는 주재형 부산불교연합회 사무국장을 비롯해 부산지역 각 종단 및 사찰, 불교단체, 신행단체 등 대표 실무진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부산연등회의 주요 일정을 공유하고, 행사 준비를 위한 실무 논의가 이루어졌다.

주재형 사무국장은 "이번 부산연등회는 오랜 숙원이었던 부산시 무형문화재 등재를 위한 중요한 기회로 불교전통문화 계승에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스님들과 불자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2569부산연등회는 4월 18일 개막 점등식을 시작으로 5월 6일까지 송상현광장에서 '부산연등문화제'를 펼친다. 4월 26일에는 부산시민공원 다솜광장에서 연등행렬도 진행한다.

앞서 부산불교연합회는 3월 15일과 16일, 부산 서구 닥밭골한지체험관에서 '2569부산연등회 전통등강습회'를 봉행했다. 이날 제작된 전통등은 오는 4월 22일 개막하는 '2569부산연등회 특별전'에서 전시될 예정이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범어사 성보博, 부산문화재단 등 MOU

3월 17일, 업무 협약식 개최
조선통신사 역사 가치 조명



범어사 성보박물관(관장 정오 스님)이 3월 17일 부산문화재단(대표이사 오재환), 국립해양유산연구소(소장 이은석)와 조선통신사를 통한 한일 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

이번 협약을 통해 세 기관은 조선통신사를 중심으로 한 문화교류 행사 운영, 연구 및 콘텐츠 활용 등에 협력하고, 조선통신사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확산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협약서에는 △부산문화재단이 조선통신사 축제 및 문화교류 행사와 네트워크 연계를 담당하고 △범어사 성보박물관은 조선통신사를 매개로 국내외 문화교류를 추진하고, 조선통신사선 한일 뱃길 재현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하며 △국립해양유산연구소가 조선통신사선과 학술연구 성과를 활용한 문화콘텐츠 개발에 집중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협약에 따라 오는 4월 27일 조선통신사 축제 기간 중 범어사에서 '조선통신사선 무사항해 기원제'가 열린다. 260여 년 만에 조선통신사선이 일본 오사카에 입항하는 것을 앞두고 한일 양국 관계자들이 참석해 안전한 항해를 기원하는 의미 깊은 행사가 될 전망이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동국대 사찰경영 총동문회, 배식봉사

3월 19일 원각사 탑공공원서
진호 스님 "어려운 시기, 나눔을"



동국대 경영대학원 사찰경영 총동문회(회장 진호 스님, 대한불교원융종 총무원장)는 3월 19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 위치한 원각사 무료급식소에서 점심공양 배식 봉사활동을 하며 자비나눔행을 펼쳤다.〈사진〉

이날 봉사활동에는 총동문회장 진호 스님을 비롯하여 태고종 수불사 주지 법경 스님 등 동문회원 20여 명이 참석했다.

동문회원들의 십시일반 보시로 마련된 이날 점심공양 배식에서 스님들은 직접 200여 어르신에게 음식을 담아 전하며 건강을 기원했다. 스님들은 배식뿐 아니라 설거지와 주방 청소 등 마무리까지 말끔하게 끝내며 배식봉사를 마쳤다.

총동문회장 진호 스님은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봉사의 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광명 금강정사, 창건 34주년 기념법회

3월 16일 대웅전서 봉행



광명 금강정사(주지 가섭 스님)가 3월 16일 창건 34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사진〉 법회에는 사부대중과 내외빈 300명이 참석해 그간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원력을 다지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법회에서 회주 지홍 스님은 "금강정사는 이제 34살 청년이 됐다. 창립 초기의 원력을 다시금 되새기고, 불자들이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실천하는 신행공동체로서 더욱 확고히 자리 잡아야 할 때"라며 "금강정사는 창립 초기부터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하는 사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찰, 전통문화가 살아 숨 쉬는 사찰을 목표로 삼아왔다. 이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금강정사는 지난 25년간 광명시의 건축규제로 중창불사를 진행하지 못했으나, 최근 광명 구름산지구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경부터 중창불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홍승도 경기남부지사장